

축산업계를 지켜온 참된 기업인

삼양약화학 민경우 사장



보릿고개를 넘어 식량자급이 된 이후 우리나라는 가파른 공업발전을 해왔고, 상대적으로 쌀 생산 위주의 농촌경제는 도시경제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새마을 사업, 국토개발 5개년사업 등을 통해 농촌경제를 부흥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지방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쌀 농사만으로는 그것이 힘들었고, 농촌에서의 축산업의 부흥은 필연적이었다. 또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물약품의 동조 또한 불가결의 요소로 대두되었다.

이즈음 민경우 사장은 중·대가축을 대상으로 한 동물약품업체인 현재의 '삼양약화학'을 설립하고, 지난 25여년간 꾸준히 양축가에게 더 좋은 약품을 값싸게 공급하여, 동물약품업계의 큰 기둥으로써 국내 축산업이 오늘날까지 발전해 오는데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다.

'진솔하게 사는 것, 진실한 대인관계'를 가장 중요시 한다는 민 사장은 양축가들과 함께 국궁히 우리 축산업계를 지켜온 참된 기업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더 싸고 효과좋은 약품을 만들기 위한 25년

민경우(閔庚宇, 70세) 사장은 1975년 7월 1일 인체약품에 10여년간 있었던 경험을 살려 '삼양약화학'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25년간을 축산업계에 몸담아 오고 있다.

삼양약화학의 현재 직원수는 62명이며,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본사와 경기도 포천에 공장을 두고 대리점 위주로 전국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돼지와 소를 주로하여 첨가제 보다는 치료제를 주품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새로운 약제인 '키토산'을 연구·개발하여 첨가제 시장에 가세하고 있다.

삼양약화학이 동물약계에서 인정을 받고, 양축가들에게 계속해서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자가 검정 시스템의 운영 때문이다.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민경우 사장은 이야기 한다. '더욱 효과가 좋으며, 더



▲사원들이 친목도모와 단결을 위해 가진 등산대회때 찍은 기념사진. 맨 앞줄 중앙에 민경우 사장의 얼굴이 보인다.

육 값이 싸고, 더욱 안전적인 약품을 생산해 내는 것이야 말로, 양축가들이 생산비를 줄일 수 있고, 나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강조한다. 또한 한 번 검증되어 생산되는 제품이라 하여 무작정 계속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는 도중에 일정기간마다 계속해서 제품 품질 검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 "즉, 제조와 제품관리가 같이 수평하게 나가면서 서로서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축가가 항상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게 됩니다"라고 민경우 사장은 이야기 한다.

꾸준히 제품을 생산하는 참된 경제발전의 주역

삼양약화학은 "인화단결, 근면성실, 창의개발"이란 사훈을 두고 사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애국자는 정치가 보다도, 3차·4차의 서비스 업종보다도 실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꾸준히 생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이 경제발전의 진정한 주체라 생각합니다"라고 민사장은 이야기 한다.

그러나 열심히, 꾸준히 생산을 하나 IMF처럼 업계 외적인 요인에 의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처리방안을 모색하기조차 힘들다고 한다. 환율에

의한 원료가 상승과 생산비 이하로 떨어진 축산물 가격 속에서는 축산업의 구조자체가 동물약품 업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위기로 혼탁할 때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으로 가격을 낮춰 양축가들을 혹하게 하여 판매하는 동물약품 회사가 있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처음엔 빈약했었던 우리나라 축산업도 많은 발전을 했다고 민경우 사장은 덧붙여 이야기 하며, 치료제에 급급했던 동물약품에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첨가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제는 동물약품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병이 나면 치료만 겨우 하던 수준에서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수준까지 발전해 온 것이라 한다.

“**축산물은 결국 인간의 식량으로써 인간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이후의 축산물은 인간에게 안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축산물에 잔류하여 인간에게 이행되는 약제의 사용은 이제는 없어지고, 환경 친화적인 약제, 환경 친화적인 축산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약제 “키토산” 개발·판매

삼양약화학의 지난 20여년 동안의 노하우를 살려 95년부터 4년간을 투자하여 사람에게도 그 효과가 탁월해 익히 알려져 있는 ‘키토산’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동물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는 새로운 약제를 약품으로 인정받은 것으로써 그 의의가 적지않다. 기존의 약제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약품을 만드는 기존의 방식에서 새로운 물질을 약품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약제의 탁월한 효과와 삼양약화학의 적지 않은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민경우 사장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다. “아래 위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정확한 경영과 투명한 재정으로 회사를 운영합니다. 숨길 필요없이 다 보여주니까 나도 편하고 불만도 적습니다. 문론, 신제품에 대한 기밀 같은 걸 투명화시킬 순 없죠”라고 말하며 웃어 보였다.

민 사장은 직원관리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상벌이 이루어지도록 정의로운 인사관리에 노력을 다하며, 어렵더라도 직원들의 복지는 최소한 실제 물가만큼은 회사가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 한다.

환경친화적인 약품, 환경친화적인 축산이 필요한 III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 축산업계와 동물약품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

깨워 준다. 인간을 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우리 축산업계라며, “축산물은 결국 인간의 식량으로써 인간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이후의 축산물은 인간에게 안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축산물에 잔류하여 인간에게 이행되는 약제

의 사용은 이제는 없어지고, 환경 친화적인 약제, 환경 친화적인 축산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이것이 동물약품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 동시에 양축가들이 노력해야 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걸어온 길과 경영이념이 한껏 배어 나오는 말이다.

아들 3형제가 다 분가하여 나가고 내외가 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민 사장은 지금 나이 70세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좌우명이 ‘최선을 다해 사는 것’과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한다. 어렵지만 화내지 않고 조용히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건강도 마음에서 오는 것이므로 될수록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삼양약화학 민경우 사장은 눈에 언뜻보이는 화려한 모습보다는 눈에 띄지 않는 성실한 모습으로 꾸준히 우리 축산업계에서 살아오고 있다. 그의 성실한 어깨위에서 국내 동물약품은 많은 발전을 해 왔으며, 축산업 또한 생산성의 향상을 적지않게 가져왔다.

진심으로 양축가를 위하고, 우리 축산업계를 위하는 그는 꾸준히 축산업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동물약품업계를 짊어지고 온 축산업계의 한 기둥임에 틀림없다. **양동**

〈취재 : 조진현〉



▲화려한 모습보다는 성실한 모습으로 꾸준히 우리 축산업계를 이끌고 있다.